

# 하노버 CeBIT2004를 다녀와서

### 하 몽 열

부품소재산업팀 대리

지난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독일 하노버 엑스포에서 개최된 2004년 하노버 정보통신 박람회는 1954년 시작해 50번째를 맞이하는 세계 최대의 멀티미디어 및 정보통신 전시회이다.

전시장 규모는 총 35만5,000㎡의 27개 홀과 20만 5,000㎡의 옥외 전시장으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함께 지멘스, 소니, 파나소닉, 노키아 등 64개국 총 6,400개 업체들이 참가하였다. 전시참관 인원은 약 700,0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은 총 709개 기업이 참가하였으며, 중국 189개, 홍콩 140개 업체가 참가(우리나라는 167개 업체) 하였다.

주요 6개 Category로 홀을 구성 IT Equipment & System, Telecommunications & Networks, Software & Services, Human Resources, Automatic Data Capture, IT Security & Cared Technology, Banking Technology & Financial Services 등으로 나누어 전시하였으며, 이밖에 삼성전자, 보다폰 등의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홀 전시장 외에 옥외 전시장을 별도로 추가 마련하여 관람객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로 UMTS가 집중 조명을 받았으며, 개최지인 독일에서는 올해 UMTS 서비스가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기타 유럽 국가들은 올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에 있다. 또 텔레매틱스와 네비게이션도 주목받는 아이템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밖에 안테나시스템, 콜센터 시스템, CTI, 스위칭 장비 및 시스템, 인터넷 전화, 위성 수신기, 비디오 컨퍼런싱 시스템이 주목을 받았다.

IT 장비 및 시스템부분에서는 디지털 비디오 오디오 TV, 그래픽 카드, 사운드카드, 이미지 프로세싱, 모바일 컴퓨터, 스캐너, 워크플로우 관리 등 다양한 제품이 출품되었으나,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으로 SAN 및 관련 시스템으로 SAN 백업솔루션, 데이터 응답, RAID 시스템, SAN 하드웨어, SAN 관리 소프트웨어, 파일관리, 스위치, 허브, 브리지 등이 관심을 모았다. 또한 전시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의 상당부분이 금융기술이 접목돼 있어 금융기술 및 파이낸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심을 입증하였으며, 이 분야에는 약 200개 업체가 현금관리 시

스템, 금융장비, 파이낸셜 서비스, 파이낸셜 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솔루션을 선보였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분야는 워크플로우 관리,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중소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이 관심을 모았으며, 특히 온라인 소프트웨어 임대(ASP)와 관련한 솔루션이 크게 각광을 받았다.

### 다음은 주요 품목별 동향이다.

#### (1) 이동 통신 단말기 분야

휴대폰의 경우 3세대 휴대폰을 주도할 UMTS(WCDMA) 휴대폰, 지능형복합 단말기, 폴더형 인테나폰 등이 선보였으며 고급 카메라폰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캠코더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메가픽셀 카메라폰을 통해 촬영한 사진을 즉석에서 인화하는 기술이 선보였다. 또한 독일 지멘스는 펜폰과 함께 블루투스 펜을 통해 휴대폰 단말기에 문자는 물론 그림까지 전송할 수 있는 신개념 휴대폰을 선보였으며, 펜택은 지문으로 본인 인증은 물론 열손가락으로 단축기를 설정해서 보안문제를 해결한 지문 인식폰을 선보였고, 일본 NEC는 손이나 다리, 기둥 등 아무곳이나 봉대처럼 감을 수 있는 휴대전화와 손목시계형 휴대전화, 해변용 방수폰등의 시제품을 선보였다.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등 극히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3G 휴대폰은 선보이지 않거나 테스트용 제품을 들고 나왔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금번 전시회에서는 대부분 3세대를 겨냥하여 상용화된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변화는 올해 유럽시장에서 보다폰, 오렌지, T모바일, 허치슨 등 주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UMTS 상용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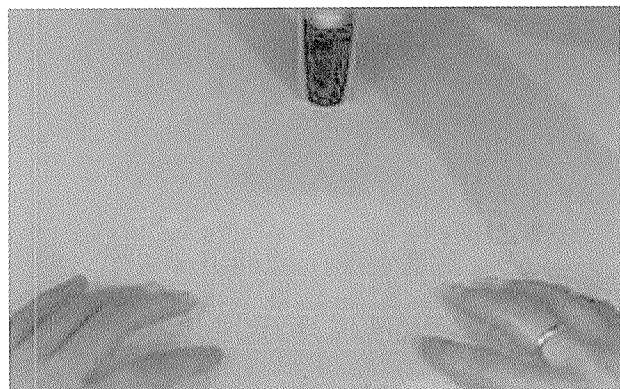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지난해 가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텔레콤 월드전시회에 GSM 및 GPRS/WCDMA 겸용 3G 휴대폰인 'SGH-Z100'을 선보였으나 이번 전시회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SGH-Z105'를 선보였으며, 이 제품은 비디오 텔레포니 및 비디오 스트리밍, 멀티미디어메시징 서비스를 지원하며, VGA급 카메라, 26만2000 TFT LCD

# 해외마케팅

를 채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보다폰과 T모바일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SGH-Z105'를 이용한 실시간 동영상 통화를 관람객들에게 직접체험할 수 있게 하여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LG전자는 2.2인치 26만 칼라 대형 TFT-LCD에 VGA급 카메라를 장착한 GSM, GPRS/WCDMA 겸용 휴대폰인 'KW2000'과 'SW2000'을 선보였으며, 이제품은 동화상 통화, VOD, MMS 등 3세대 고속데이터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듀얼 폴더 휴대폰으로 줌, 연속촬영 등 부가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모토로라는 3종류의 UMTS폰을 선보였는데, 'E1000'은 메가픽셀 카메라를 장착한 제품으로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는 QVGA 스크린, 블루투스 USB 업댑터, 외장형 메모리 카드 등을 장착하고 있다. 또 UMTS를 지원하는 'A925'는 터치스크린, 블루투스를 지원 하는 것이 특징이며, 역시 UMTS를 지원하는 'A835'는 스트리밍, 화상회의가 가능하며, MMS, 블루투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소니에릭슨은 3G 휴대폰인 'Z1010'을 선보였는데, 화상전화, 화상메세지, 비디오 E메일, 비디오 스트리밍, 20미터까지 가능한 블루투스를 지원하며, 미니 USB포트를 지원하고 있다.

금년 세빛전시회의 또 하나의 화두는 메가픽셀급 카메라폰의 대거 진입이다. 삼성전자와 팬택이 200만화소급 카메라폰을 선보여 화소경쟁에서는 한 발 앞선 모습을 보였으며, 이 두회사의 제품은 모두 CDMA방식으로 국내 시장에서 상반기에 출시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말까지 유럽시장용 200만화소 카메라폰을 출시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슈퍼 XGA급 해상도로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는 123만화소의 카메라폰을 전시하였으며, 소니에릭슨은 디지털카메라를 닮은 130만화소급 카메라폰인 'S700'을 선보였는데, 이 제품은 26만2000 칼라 TFT 액



[휴대폰, PDA 등 모바일용을 위해 개발된 베투얼 키보드]

정 화면을 갖추고 있다. 지멘스는 130만 화소급 카메라폰인 'S65'를 선보였는데 이 제품은 멀티미디어카드로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으며, 블루투스를 지원하며 또한 USB를 지원해 PC와 원활한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다. 노키아는 자사 최초의 100만화소 카메라폰인 '7610'을 선보였는데, 4배줌, 블루투스, MMS 등을 지원한다.

## (2) 디스플레이 분야

일부업체의 브라운관(CRT) TV를 선보인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PDP TV나 LCD TV를 선보여 평판디스플레이(FPD)와 CRT의 세대교체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삼성전자가 80인치 PDP TV와 57인치 LCD TV를 선보였으며, LG는 76인치 PDP TV와 55인치 LCD TV를 전시하였다.

샤프는 45인치 LCD TV, 마쓰시타전기는 50인치 PDP TV, 32 인치 LCD TV, 소니는 61인치 PDP TV, NEC는 61인치 PDP TV 등 일본업체들도 각기 전략제품을 선보였다.

이들 TV중에는 멀티 메모리 슬롯(Memory Stick/ CF/ MMC/SD/ Smart Media)을 탑재한 TV와 디지털 비디오 리코딩 기능을 탑재한 제품이 등장했고 1080p(프로그램 시브)의 고해상도 PDP TV와 함께 다양한 마이크로디스플레이(DLP)프로젝션 TV와 홈시어터용 DLP 프로젝터도 전시되었다.

PDP TV중에는 세계최고의 밝기인 1000칸델라와 명암비 1200:1을 실현한 제품도 등장, 특히 PDP TV의 경우 시야각 180°를 실현한 제품이 대거 선보였다.

## (3) DVD 분야

네덜란드 필립스는 듀얼 레이어 기반의 DVD+R/RW 드라이브인 '885K'를 선보였는데, 이제품은 더블레이어 DVD+R 기록이 가능하며, 1차 레이어는 8배속으로, 2차 레이어는 4배속으로 기록발표하고 가 16배속으로 DVD를 기록할 수 있는 DVD+R 제품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LG전자의 경우 일본의 히타치와의 합작사인 HLDS는 듀얼 레이어 DVD리코더를 발표, 8배속에 머무르고 있는 싱글레이어 DVD+R/-R 속도를 12배속으로 높인 슈퍼멀티포맷 DVD버너를 전시하였다.

## (4) 기타

일본 소니사는 '개인형 라디오'를 북유럽에서 4월부터 핀란드 이동통신사인 텔리아소네라를 통해 서비스 시작할 예정으로 휴대전화로 종와하는 음악을 수신해 즐길

## 해외마케팅



▲ [한국공동관 모습]

수 있는 '개인형 라디오'로 서비스료는 월 10~15유로로 예상되며, 음악뿐만 아니라 음성뉴스도 수신하고 음질은 FM라디오 수준이다.

또한 네덜란드의 필립스는 두께가 변하는 유체 렌즈를

개발해 서로 다른 2종류의 유체를 사용해 자유롭게 초점 거리를 바꿀 수 있는 'Fluid Focus 렌즈'를 전시하였는데, 이는 사람의 눈이 초점을 맞추기 위해 수정체의 두께를 바꾸는 것과 유사한 원리이다.

일본의 NEC는 PDP 디스플레이용 내장형 PC컨트롤러를 개발해 전시하였는데, 일본인의 취향대로 소형인데다 20W만 사용하는 저전력인 것이 특징으로, NEC측은 이 같은 디스플레이와 정보전송시스템을 결합시켜주는 '정보 디스플레이 솔루션' 세계 시장이 2005년 까지 4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밖에 파나소닉은 지난해 ITU 전시회에서 선보였던 립스틱폰, RFID(전파식별)칩이 들어있어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는 팔찌, 반지 등을 출품하였다.

이상으로 주요 품목별 동향에 살펴 보았으며, 현재 및 앞으로의 IT추세는 지난 17일 독일 하노버 '세빛2004' 전야제 기조연설에서 안도 구니다케 소니 사장이 'IT와 휴대폰 가전기기간의 벽이 무너지고 있으며 IT와 AV, 가전기기 등을 융합한 제품 개발이 기업의 생존열쇠'라고 선언하면서 휴대형 디지털 복합기기 형태로 변화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 관련 기업들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세계시장에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삼성전자관 부스]



▼ [LG전자관 부스]

